# 가장 어려운 순간 나 대신 싸워주는 단 한 사람



## 영업배상책임보험

- 2011. 8. 26. 사고
- 한화손해보험에서 피해보상금액 550만원 지급
-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내 친구보다 내 동료보다 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힘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은 평생 잊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날 근무가 있으면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보험은 여유가 있을 때 꼭 미리미리 들어두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글은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할지…….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수업시간에 쪽지 돌리기 할 때 써보고, 마누라랑 연애할 때 연애편지 몇 번 써보고는 처음이네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음, 저는 하나로티엔에스에서 근무하는 김동일 대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카리스마 하나로 일평생을 살아오신 부장님하고 깐깐하게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과장님, 이리저리 힘든 일에는 숨고, 궂은일은 피하는 조대리랑 눈치가 너무 없어 일복이 터지는 저, 일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일을 더해주러 온 것 같은 신입사원 권순영 이렇게 다섯이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사무실이나 그렇듯이 부딪히기도 많이 하죠. 늘 혼나는 게 일이고요. 매일 지각해서 혼나는 직원도 있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안하무인이 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도 일 끝나고 소주 한 잔 딱 마시면 금방 풀어져서 일할 맛나게, 재미나게 지내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서로 잘 챙겨주기도 하고요. 새로 온 신입이 워낙 일이 처음이고 서툰데 의욕이 앞서는 친구라서 불안 불안했지만 저희 팀워크가 워낙 좋다 보니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 날, 그 사건 있기 전까지는요.

그 날은 전날 회식 때문에 다들 상당히 피곤해 있었던 상태였어요. 저희 팀이 워낙 술 하면 빠지지 않는 팀이다보니……. 막내가 폭탄주 만들면 부장님부터 파도타기를 열 번 하고 회식을 시작하거든요. 보통은 빨리 마시고, 집에 가서 푹 자고 다음 날 또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인데 이번엔 과장님네 둘째가 재수에 성공해서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들 무리를 좀 했습니다. 원래 우리 과장님이 다들 말하는 그 딸바보, 딸바보라서 둘째 사랑이 좀 각별하셨거든요. 집에도 못가고 둘째 얘기를 한참 듣고 이제 가나 했더니만 갑자기 조대리가 임신한 아내가 요즘 호르몬 때문에 너무 예민하다고 울음을 터뜨리고 해



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들 날밤을 새고, 출근을 모두 하긴 했지만 비몽사몽 취중근로였습니다.

"얼른 하고 해장하러 가자!"

한참을 흐느적거리다 부장님 말씀에 다들 기운내서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뿔사!

어디서 천둥 벼락이 치는 것처럼 굉음이 나더군요. 전쟁이라도 난건가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화물 하나가 추락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형 사고는 처음이어서 다들 서로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리를 몇 번이나 꼬집어보고는 당황해서 다급하게 인원 점검부터 했습니다. 몇 번을 부장님, 과장님, 조대리, 김대리, 권순영이를 불렀습니다. 인원체크는 다 했는데, 권순영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막내 어딨냐!"

"막내야!"

눈앞이 깜깜해져서 혹시 화물 아래 깔렸나 정신없이 달려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지게차 위의 막내가 보였습니다.

"막내 저기 있습니다. 지게차 위에요!"

정말 그 잠깐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대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넘어지더군요.




잽싸게 올라가 권순영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이 친구가 일어서지를 못하고 자꾸 주저앉는 겁니다. 넋이 나가 있더군요.

"야, 권순영 정신 안차려?"

막무가내로 멱살을 쥐고 끌어내렸습니다. 혹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다들 모여 체크해봤는데 다행히 부상은 없더군요. 30분 쯤 지났을까 넋이 나가 있던 권순영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권순영을 보며 다들 한숨을 쉴 뿐이었죠.

"기어이 권순영이 사고 쳤네."

허탈하게 웃는 과장님 뒤로 산산조각이 난 화물이 보였습니다. 해장은 커녕 더 이상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직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작업이 정지된 상태로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부장님이 일어나 화물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시킨 것도 아닌데 동시에 벌떡 일어나 사고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멀쩡하고 어떤 게 파손된 것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화물도 하필이면 충격에 약하면서 고가인 LED바였습니다. 도대체 얼마짜리 사고인지 감도 오지 않더군요. 그때의 그 절망감이라니……. 정신없이 물건들을 뒤지고 있는데 부장님이 한 마디 하시더군요.

"밥은……. 먹고 하자."

그제 서야 직원들 허리를 펴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더군요. 12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전 직원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내일은 또 다른 물건들을 하역해야 했으니까요. 우선 사고 물품들은 정리를 하고,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물품에 관한 계산은 부장님과 제가 도맡아 하기로 했는데 권순영이가 벌벌 떨고 있기만 할 뿐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안되겠다. 권순영이, 너 이리 와."

결국 부장님께서 팔 걷어 부치고,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권순영은 사고 물건들 정리하게 두고, 저 혼자 계산하기로 했죠. 억 소리 나오데요. 이건 뭐, 권순영 월급, 아니 제 월급도 아니고 부장님 월급까지 다 까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하루 종일 주판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때?"

부장님이 담배 한 개피를 피우다 물어보시더군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숨을 푹 쉬고 있었죠.

"많이 심해?"
"8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8……천?"
"네."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부장님께서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 내일 업체에 한 번 가보자."

업체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자는 말씀이었던 거죠. 도무지 잠들 수 없을 것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업체에서는 길길이 난리가 났습니다. 날짜 못 맞추면 우리도 큰일인데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거의 무릎을 꿇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사정하는 부장님을 모시고 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부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어떻게 그러냐며 한사코 고집을 부리는 부장님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업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8천 정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도저히 그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 쪽에선 물러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별 소득 없이 회사에 돌아와 보니 정말 온 사무실이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부장님께서는 담배만 뻑뻑 피우시고요. 그 땐 정말 다 같이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 때 신통방통한 생각이 하나 나더군요. 아, 보험!

"부장님! 왜 지난번에 대리점에서 와서 보험 하나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보험? 그게 뭐 그리 큰 도움이 되겠어?"

"에이, 그건 모르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 번도 보험 덕을 본 적이 없다며 시큰둥하던 부장님도 결국 가세해서 이번엔 전 직원들이 서류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평소엔 책상 여기저기 잘만 굴러다니던 게 이상하게 찾으면 없곤 하죠.

"찾았다! 찾았어요!"

사고뭉치 막내 권순영,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밝게 소리치더군요. 부장님께서는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고, 다음 날 바로 방문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가닥 희망이었죠.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요.

바로 다음 날 한화손해보험에서 부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고 물품을 둘러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정말 자세하게 이것저것을 알아 가시더군요. 한참을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신 후, 곧바로 피해 업체 쪽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제가 운전대를 잡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정말 절실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돌아오겠다고 눈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던 보험회사 부장님, 솔직히 좀 딱딱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믿고 가도 될까, 우리 다른 해결책을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해 회사와의 첫 미팅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섭게 설명하시더군요. 질문 하시면서 물건을 대충 살펴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개중에 파손되지 않은 물건도 상당히 있었고, 약간의 수리만 하면 사용 가능할 텐데 왜 이 돈을 다 물어야 하는지 조리 있게 조목조목 따지시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첫 번째 미팅이 끝나고 차에 오르자마자 절로 감사인사가 튀어나오더군요. 그제서야 보험사 부장님께서 웃어 보이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사실 보험사 부장님께서도 긴장하셨다 하시더군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고, 긴장하셨다고요. 하지만 그 날 그 미팅 날에는 사람 같지 않을 정도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정말 천군만마를 얻었구나 싶었죠.

다음 미팅에는 저희 부장님과 보험사 부장님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지난번 미팅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물품 전문가와 피해 업체 쪽 사람이 함께 와서 피해 물품의 견적을 다시 한 번 얻어갔습니다. 이번엔 저희 부장님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 저나 부장님이 그렇게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서 보험사 부장님께서 거의 모든 말씀을 하셨지만요.

"손해액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손상

된 150개의 LED 바 중에서 8개는 도저히 수리 불가능하더라도 142개는 수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전부 보상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장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나니 피해 업체 쪽에서 내부에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날, 피해업체 쪽에서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무려 7천만 원 이상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배상금도 보험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었구요. 1년은 월급을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사무실 가족들 전부 얼마나 얼싸안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날 피해업체에 우리 대신 용맹하게 싸워주신 모습이 줄어든 배상금보다 더 값지고 고마웠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내 친구보다 내 동료보다 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힘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은 잊기 힘든 마음이더군요. 거기다 그 사람이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든든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제 기억에 담겨있겠습니까.

그 후 저에게는 두 개의 철칙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다음날 근무가 있으면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험은 여유가 있을 때 꼭 미리미리 들어두자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옆에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이 험한 세상 그렇게 겁내지 않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One-Point 컨설팅

위 내용은 지게차로 화물을 옮기던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물이 추락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는 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가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납품업체에 대한 배상 책임액을 낮춤으로써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영업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사업운영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_ 피보험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입혀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기본적인 보험상품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어디로?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차티스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NH농협손해보험, ACE손해보험